

“더욱 굳건한 은행 만드는데 노력할 것”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연임 확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백종일 은행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JB금융지주 자회사CFO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차기 전북은행장 후보로 백종일 현 은행장을 단독 추천했으며, 전북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17일 임시주

주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했다. 백종일 은행장의 임기는 1년이다.

2023년 1월 취임 이후 백종일 은행장은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견인했다. 올해 3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17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으며, 연체율도 0.78%까지 낮추는 등 건전성 관리에도



성과를 보였다. 백종일 은행장은 “다시 한 번 은행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화와 혁신으로 더욱 굳건한 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상생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1962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15년 전북은행 부행장을 맡아 여신지원본부, 전략기획본부, 자금운용본부를 담당했고,

JB자산운용 대표,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장을 거쳐 지난해 제13대 전북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은행, 쓱뱅크 VIP라운지 오픈 이벤트 경품 증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쓱뱅크 VIP라운지 오픈 이벤트 ‘고객님 감사합니다’의 경품 증정 행사를 완료했다.

지난 11월 30일까지 진행한 이번 이벤트는 전북은행 우수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속적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했다.

참여고객 중 추첨을 통해 미술품 조각투자 앱 ‘소부(SOTWO)’를 운영하

는 아트 파인스 기업 ‘서울옥션블루’와의 협업으로 준비한 요셉 알버스 판화 1점, 앤디워홀 Ddk 드로잉 1점, 카우스 배지 9개와 ‘트렌드코리아 2025’ 도서 50권을 경품으로 증정했다.

북권 굿기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들에게는 이벤트 기간 중 매주 화요일 오전에 커피 모바일 쿠폰을 제공했으며, 요셉 알버스와 앤디워홀 미술품에 당첨된 고객들은 전북은행 본점 1층 JB스퀘어에서 증정식을 갖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크리스마스 밝히는 ‘우리 포인세티아’, 화훼 시장 입지 굳혀

연말 분위기 살리는 화훼류로 성장세 지속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이 ‘크리스마스 꽃’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인세티아 국산 품종을 소개하며, 소비 촉진에 나섰다.

포인세티아는 초록과 붉은 잎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연말 연시를 장식하는 화훼 작목으로 꽃말은 ‘축복’이다. 코로나19로 화훼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생산량이 증가하며 현재까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와 농가 맞춤형 품종으로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23.6%였던 포인세티아 국산 품종 보급률은 올해 2배 이상 오른 51.1%를 기록하며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외국 품종이 주를 이루던 시장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는 데 결정적 역할

을 한 품종은 올해 대한민국 우수품종 상 장관상을 받은 ‘플레임’이다.

빨간색이 선명하고 뾰족한 잎이 매력적인 ‘플레임’은 잎(포엽)이 물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7주 정도로 짧아 소형 화분 생산용으로 적당하다. 품종 사용료도 외국 품종의 10분의 1인 한 주당 10원에 불과해 농가에서 5만 개를 생산한다고 할 경우, 약 450~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플레임’은 국산 품종 생산량의 73.4%를 점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플레임’의 뒤를 이을 품종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잎이 공처럼 둥글게 말리는 ‘베드볼’, 분홍색 ‘슈가볼’, 연노란색 ‘그린스타’도 개성 있는 색을 뽐내며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이영란 과장은 “농촌진흥청은 앞



으로도 소비 경향을 반영해 고온 적성 품종과 특이한 모양의 품종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국산 포인세티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올 크리스마스에는 화훼류 소비가 늘어나 연말 분위기도 살리고 침체해 있는 화훼 시장에도 활기가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획득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노력 인정받아 2년간 인증 연장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받아 2024년 12

월부터 2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은 2021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처음 인증을 획득이

후, 가족돌봄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제도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해왔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바이오진흥원이 직원들의 행복과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을 기반으로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인증 연장을 계기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욱기 기자



전북개발공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거복지 견인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사진은 2024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시상식

전북개발공사, 전북 주거복지 견인

임대료 할인제도 시행 노후시설물 개선 등 추진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거복지 견인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30년 임대주택에 대하여 2025년 1월부터 임대료 할인제도 “이이신·난·다”를 시행한다.

해당 단지는 전주평화, 익산송화, 전주효성, 군산금광 1.323세대로 계약 체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 혼인을 한 세대는 1회에 한해 2년간 임대료를 50%를 할인, ‘난’ 신생아 출생시 1회에 한해 2년간 임대료 전액을 할인, ‘다’ 만 6세 이하 2명 이상 포함된 다

자녀 세대는 횡수 제한 없이 임대기간 중 임대료 전액을 할인한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전주평화, 익산송화)대상 보일러 및 주방기구 전면교체 등 노후시설물 개선, 입주인 주거민족도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하고 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0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최 2024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해당 포상 중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기관 창립 이래 최초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15개 단지 총 6,328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운영 중이다

/이만호 기자

찾아가는 통상닥터, 대형 수출계약 체결

전주기업 크레드, 모아트레이딩에 전주수제초코파이 200만불 수출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에서 2024년 주요 수출지원 정책으로 추진한 ‘통상닥터 지원사업’이 다양한 실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말 200만불 수출계약이라는 대형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계약으로 연초부터 전주기업에 찾아가는 맞춤형 수출컨설팅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경진원 윤여봉 원장의 수출 전략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계약 당사자는 주식회사 크레드 최성은 대표와 모아트레이딩(MORE TRADING LLC) 최순식 대표로, 전주 우수 상품인 전주수제초코파이를 미국 뉴욕에 수입 및 유통하는 조건으로 200만불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크레드는 전주의 주요 관광상품이자 전북 우수 상품인 전주수제초코파이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모아트레이딩은 한국 중견기업 (주)오뚜



기의 제품을 미국 뉴욕에 독점 수입입식#8231:유통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현재는 오뚜기 외에도 다양한 우수 제품들을 발굴하여 수입하고 있는 식품 유통회사이다.

주식회사 크레드 최성은 대표는 “통상닥터가 직접 바이어를 발굴하여 메뉴얼을 구축하고, 계약까지 이어지도록 밀착 관리를 해주어 이러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통상닥터는 새로운 시장 앞의 수출 파트너이자 든든한 조력자이다. 산·관이 협력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도와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